

제 1 교시

언어 영역

홀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배우가 관객을 웃게 만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해서
- ② 자신의 심정을 과장하여 말해서
- ③ 재치로 관객의 예상을 깨뜨려서
- ④ 특이한 표정과 몸짓을 활용해서
- ⑤ 동음이의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2. (물음) 학생이 민요를 채록할 때, 마을 주민에게 해야 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민요의 민속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 ② 이 민요는 어떤 때, 무엇을 하며 불렀나요?
- ③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④ 옛날부터 이 마을에 전해 오는 특별한 이야기나 풍속은 없
나요?
- ⑤ 이 민요 말고 예전에 부르시던 다른 민요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3. (물음) ‘서원’을 검색하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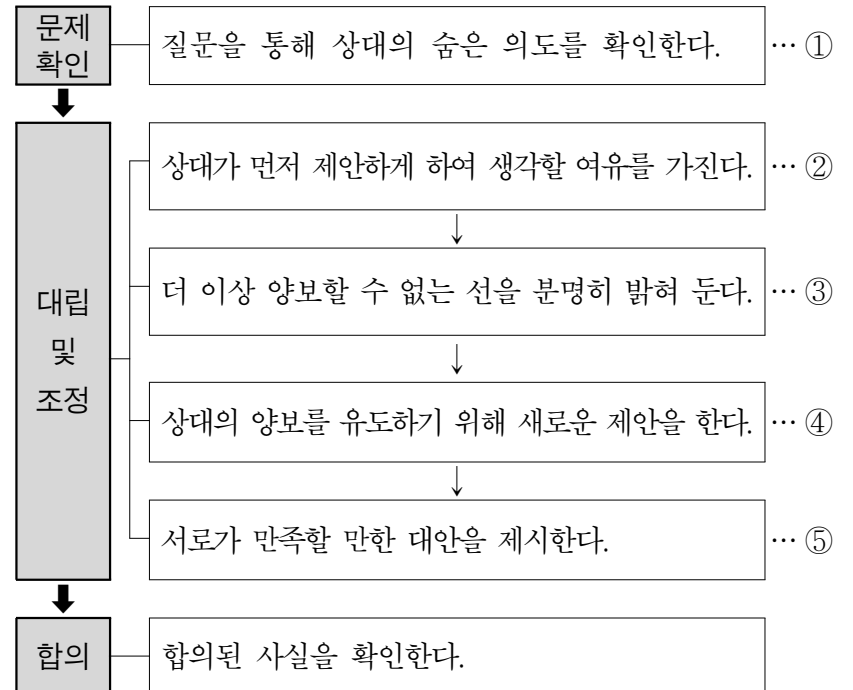
- ① 지역별 서원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네.
- ② 서원과 그 주변 마을의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네.
- ③ 서원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네.
- ④ 서원과 당시 정치 상황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네.
- ⑤ 현재 남아 있는 서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학생이 활용한 협상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정]

[협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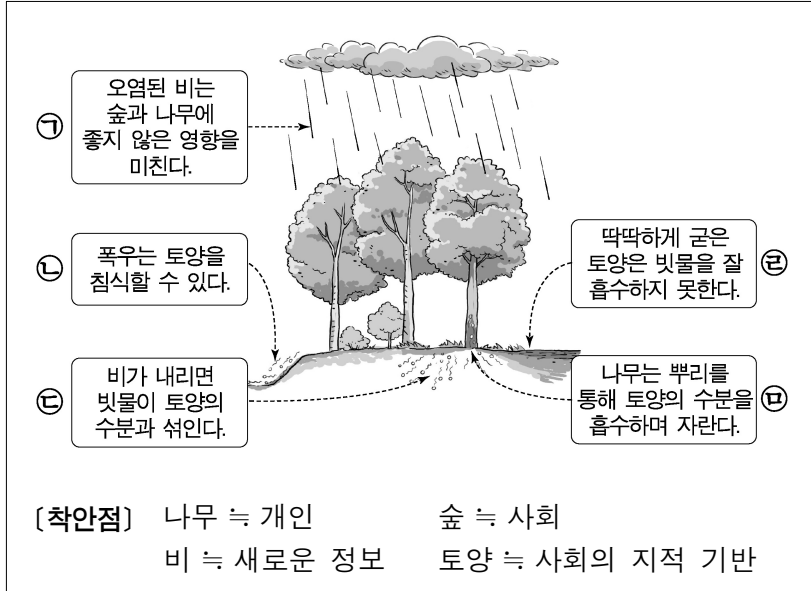


5. (물음)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속한 동아리가 발표회에서
하게 될 일은?

- ① 별관 꼭대기 층 교실에서 시화전을 한다.
- ② 별관 꼭대기 층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한다.
- ③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시화전을 한다.
- ④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한다.
- ⑤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숲에 내리는 비를 보고 ‘정보의 수용’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릇된 정보가 유입되면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② ㉡: 새로운 정보가 지나치게 유입되면 개인 간 갈등이 유발된다.
 ③ ㉢: 새로운 정보는 사회의 기존 정보와 합쳐져 그 일부가 된다.
 ④ ㉣: 지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쉽지 않다.
 ⑤ ㉤: 개인은 사회의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다.

7.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학교에 옥외 쉼터를 조성하자.

I. 서론: 학교 휴식 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II. 본론

1. 조성의 필요성

가. 학생들의 여가 활용 시간 부족 ㉠

나. 자연 친화적 성격의 공간 요구

2. 조성의 장애 요인

가. 학교 휴식 공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나.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 ㉡

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

3. 해결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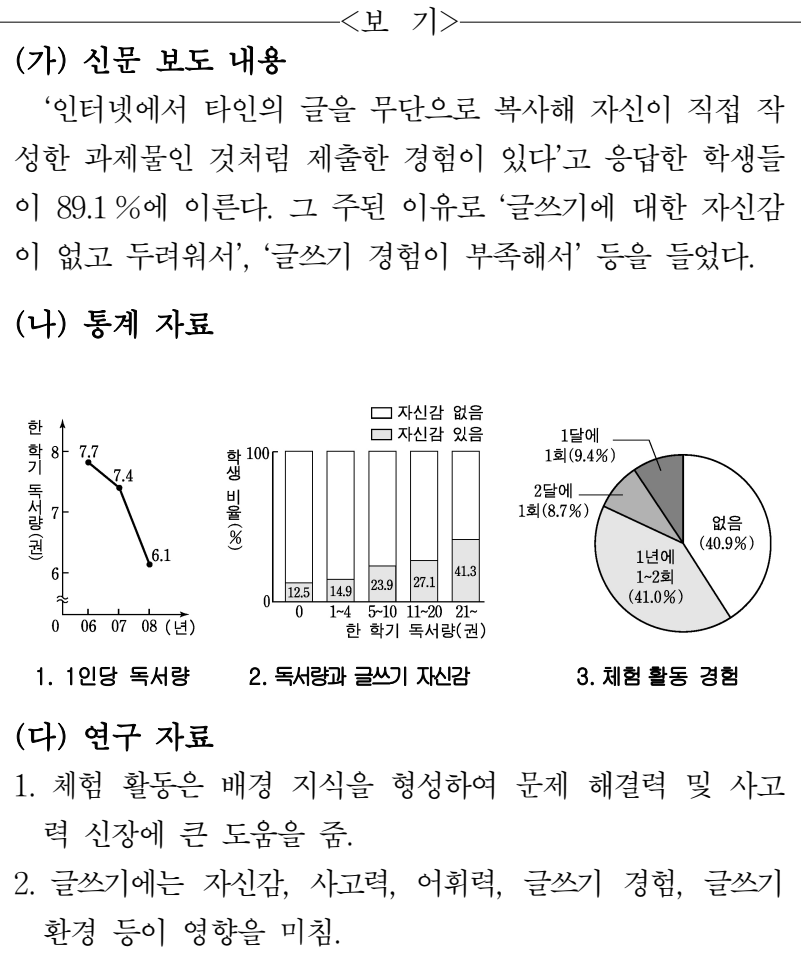
가.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나. 학교 옥외 공간의 활용 방안 부재

III. 결론: 학교 공간에 대한 발상 전환의 촉구 ㉤

- ①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 요구’로 바꾼다.
 ②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3-나’와 위치를 바꾼다.
 ③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④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로 고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학교 옥외 쉼터의 조성 제안’으로 바꾼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신장’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글쓰기 태도를 지적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② (가)와 (나)-1, 2를 활용하여, 독서량 감소가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야겠어.
 ③ (나)-3과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 경험이 늘어나면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④ (나)-1과 (다)-2를 활용하여,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의 한 원인임을 밝혀 어휘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⑤ (나)-2와 (다)-2를 활용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자신감을 신장시키기 위해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임을 제시해야겠어.

9. 다음은 체험 활동을 하고 난 후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간이역을 다녀와서

이제까지 간이역은 사진으로만 보아 왔다. 사람들은 흔히 ‘추억의 간이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나는 그 이유를 이번에 다녀온 ○○역 대합실 안의 물건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합실 밖으로 나가 플랫폼에 서서 잠시 상념에 잠겨 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역을 찾았을까?’ 간이역에 얹힌 이웃들의 사연은 ㉡마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생각다 못해 지난날의 삶의 추억에 아련히 젖어 들었다.

대합실 안에는 손때 묻은 나무 의자와 빗바랜 열차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 ㉣오래된 모퉁이에 세워진 난로 등 할머니의 사진첩에서나 봤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처럼 추억 속 물건이 가득한 간이역은 지난날을 ㉤회상하게 한다.

- ① ㉠의 내용을 고려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② ㉡은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루’로 바꾼다.
- ③ ㉢은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난로’로 고친다.
-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회상한다’로 고친다.

10. 대출 도서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의도 : 대출 도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표현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함.

- ①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남과 함께 사는 세상
- ② 책에 흔적을 남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흔적을
- ③ 제 몸 곳곳에 늘어나는 상처
 당신의 양심에 새겨지는 낙서
- ④ 지나친 손길로 얼룩져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 ⑤ 늘어나는 책꽂이의 빈자리
 나눌 줄 모르는 당신의 빈 가슴

11. <보기 1>의 ㄱ~ㄴ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기 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 2>

a. [설렁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렁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티미 이연패를 헐때]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ㄱ	ㄴ	ㄷ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ㅂ시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13.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후지의 현대적 의미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1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②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보다 지를 우선시했다.
④ 최한기는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수양에서 찾았다.
⑤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15. <보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 ①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군.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③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군.
④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앗을 자리와 술, 과일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앗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중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16.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③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④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 ⑤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 ③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⑤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18.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19.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②佳人薄命(佳人薄命)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⑤ 독야청청(獨也青青)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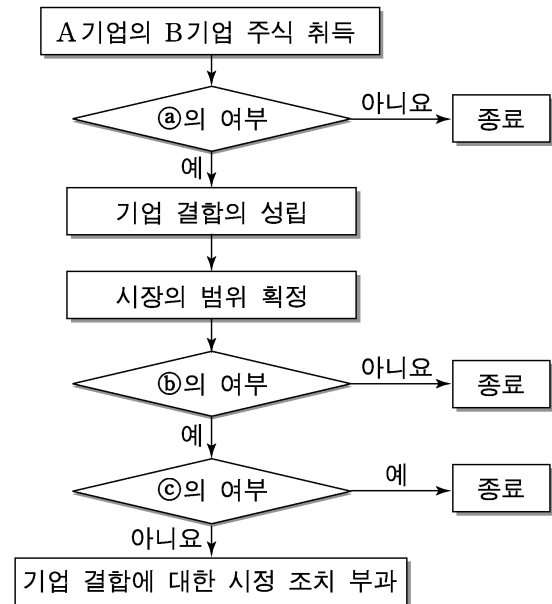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 | ㉡ | ㉢ |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경쟁 제한 | |
|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경쟁 제한 | — 항변의 타당성 | |
|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항변의 타당성 | |
|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가격 인상 \ 판매량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②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③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④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⑤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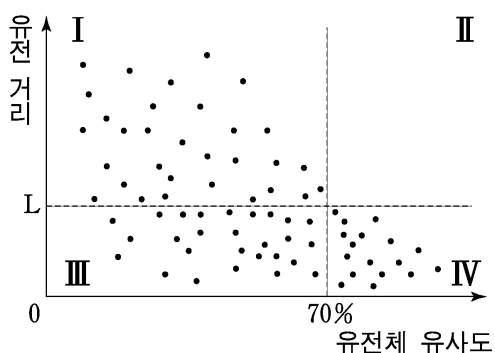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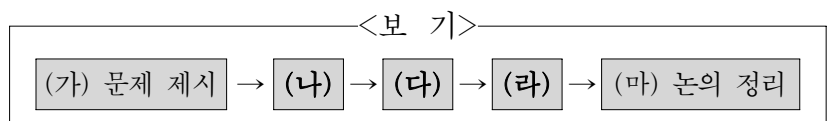


그림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L)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4. <보기>는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나)	(다)	(라)
①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의 한계	보완 방법
②	주장 제시	예상 반론 제시	반론 비판
③	개념 설명	사례 제시	개념 재정립
④	가설 제시	가설 검증	이론 도출
⑤	관점 확인	근거 제시	사례 설명

2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26. 위 글의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이상이고 유전체 유사도가 70 %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님을 나타낸다.
- ② II 영역에 점이 없는 것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인 경우 L 미만의 유전 거리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 ③ II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미만이라도 유전 거리만으로는 종의 경계 구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 ④ IV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인 경우 유전 거리도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⑤ I ~ IV 영역은 유전 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8. 동만네 집 전경(밤)

동만 모의 진한 핏빛 울음소리 들리는데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 끝없이 쏟아지는 ㉠ 장맛비. 장맛비. (F.O.)

29. 건지산 전경

(F.I.) 한고비 숨을 돌려 보슬비 뿌리는 하늘. 멀리 회색빛 웅자를 자랑하는 ㉡ 건지산의 자태.

30. 동만네 마당

㉢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툇마루에 나와 앉은 외할머니. 부엌에서 이모가 ㉣ 밥상을 들고 힘겹게 나온다. 일손 멈추고 멍하니 건지산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이모(길자) 진지 드세요.

친할머니 (밥상 받으며) 사부인은 좀 드셨능가?

이모 통 안 드셔요. 한 숟갈두…….

친할머니 에휴 쫓쫓…….

(밥상을 받고 사르르 문을 닫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한상 들고 나오는 이모.)

이모 (외할머니 앞에 몇더니) 그래 진지 안 드셔요?

(그저 냇 나간 듯 앉아 있는 외할머니. 이모 밥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간다.)

31. 안채 건넌방

머리를 질끈 동이고 자리에 누운 동만 모. 밥상 들고 들어오는 이모 길자.

길자 언니 식사해요.

(엉거주춤 일어나 앉은 동만 모. 금세 눈물이 또 쏟아지며)

동만 모 에유! 우리 길준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몇몇하게 끓여 주도 못하고.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찔끔찔끔 찢다.)

길자 인제 고만 좀 해 뒤요. 몸도 생각해야지.

동만 모 에유! 느이 오라비 불쌍한 길준이…… 전쟁터에서 죽다니…….

(방문 벌럭 열리며 뛰어드는 동만.)

동만 밥 줘, 배고파.

길자 어서 먹어라. 언니두 한술 떠요.

(마지못해 밥숟갈을 드는 동만 모. 동만이는 벌써 아구아구 입에 퍼 넣고 있다.)

동만 모 넌 좀 안 드냐?

길자 생각 없어요.

동만 모 엄니는?

길자 통 안 잡수셔요.

동만 모 에휴! 큰일인지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길자 …….

동만 모 나야 괜찮지마는 엄니가 얼마나 상심하실 것이냐? 삼대독자 외아들을 잃었으니…….

(다시 눈물을 찔끔거리다가)

동만 모 어서 누구를 양자로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지. 저리 큰일 아니냐.

길자 …….

(꽂보리밥 한 그릇을 우걱우걱 비우며)

동만 모 동만 아버지 점심 안 하셨제?

길자 형부는 밭에 나가 계세요. 점심 내다 드려야죠.

동만 모 내 대신 니가 고생이다. 에휴 에휴…….

(밥숟갈 놓으며 다시 눈물 찔끔거리면서 드러눕는다.)

32. ㉤ 마당

툇마루에 고정된 물체처럼 먼 산 바라보고 앉은 외할머니. 동만이가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건지산을 향한 채 미동도 없는 외할머니의 눈길. 동만 손바닥을 펴서 외할머니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원을 그려 본다. 그제야 눈길 스르르 움직여 동만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버릇처럼 완두콩을 다시 까기 시작한다. 부엌에서 이모가 대소쿠리에 점심을 담아 이고 사립문을 나간다. 냇다 따라 나가는 동만.

33. 들길

보슬비 뿌리는 들길. 포플러 나무 우뚝우뚝 치솟은 발독길을 나란히 가는 동만과 이모.

동만 이모.

길자 응.

동만 우리 외삼촌 죽었제?

길자 ……그래 전사하셨다.

동만 전사란 게 군인이 나가 죽었다는 거제?

길자 ……그래.

동만 왜 좀 더 숨어 있덜 았구 군인 나가 죽어?

길자 무어?

동만 외삼촌이 뒤란 대나무밭에 숨어 있지 았았능감? 피난 와서 내내 숨어 있덜 았았능감? 현디 왜 좀 더 숨어 있덜 았고 군인 나가 죽어 뿌리능감?

길자 그건……그게 아냐.

동만 그게 아니라게 뭐가 아냐? 외삼촌이 대숲에서 한 달 동안 잘 숨어 있덜 았았디야?

(무어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한 길자. 따라가며 고개를 갸웃해 보는 동만.)

- 윤삼육 각색, 「장마」 -

27.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말문을 닫고 있다.
- ② 동만 모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 ③ 동만은 이모 길자를 통해 외삼촌의 사연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 ④ 이모 길자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일부러 외출했다.
- ⑤ 친할머니는 사돈댁이 겪은 참담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8.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울음소리’와 뒤섞이며,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은 원경으로 제시되어, 배경이 되는 공간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군.
- ③ ㉢을 소품으로 먼저 제시한 이후, 이것을 다듬는 연기를 통해 외할머니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은 카메라의 이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가족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포착되도록 돕고 있군.
- ⑤ ㉣은 같은 공간에 위치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소통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군.

29. <보기>를 바탕으로 #28~#32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적 고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위),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 ② #28에서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 ③ #30 말미에서 앉아 있는 외할머니와 #31에서 누워 있는 동안 모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30과 #31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여, 외할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동안 모가 있는 공간으로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한다.
- ⑤ #31에서 #32로 바뀔 때, 이모 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매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A→B/___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ㅁ 국물 [궁물]

ㄷ → ㄴ / ___ ㅁ 만며느리 [만며느리]

ㅂ → ㅁ / ___ ㄴ 읍내 [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올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뒤편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굵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으니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굵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B]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다른 눈썰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잡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건어붙이고 나서서 뒹들어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쩍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떠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뒹뒹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까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구뿐으로 일 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채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채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재꼴이 남루한 낮선 사람은 모두 전채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채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채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임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채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쩍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솜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홀이 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재꼴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채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A]

“옥상, 오킴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졌슈.”

웅쩍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쩍이는 서슴지 않고,

“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륙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B]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에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쩍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쩍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향품배: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3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웅점이가 숨쉴는 나무랄 데 없지만 통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야.
- ② 웅점이 자신: 나보고 오지랖이 넓다고들 하는데, 나 없으면 동네 큰 잔치는 누가 준비하지?
- ③ 장들뱅이 총각: 웅점이가 가난하지만 얹으면 색시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 ④ 근동 사람: 웅점이네 속사정을 잘 아는데, 웅점이가 사람만 놓고 보면 커다란 흠은 없지.
- ⑤ 절름발이 늙은이: 관춘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웅점은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40.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춘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계층 간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 ② 전재민촌은 강한 내적 결속력을 가진 폐쇄적인 공간이다.
- ③ 관춘은 역동적인 공간임에 비해 전재민촌은 한적한 공간이다.
- ④ 관춘은 전재민촌과 달리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공간이다.
- ⑤ 관춘과 전재민촌은 모두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41. 위 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관춘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짧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평’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A]는 ㉠의 ‘주요 행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웅점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 ③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 나타난 세대 비판적 태도에서 ㉣을 엿볼 수 있다.
- ⑤ [B]의 어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롱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롱가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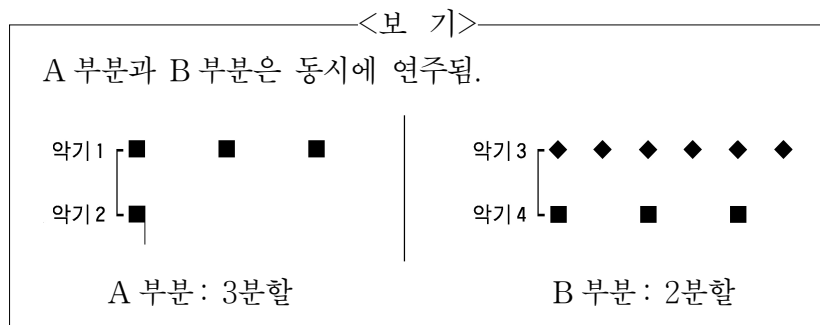
42. 위 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기한 후에 가능했다.
- ② 14세기의 악보에서는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했다.
- ③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④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상대적인 음길이를 표시했다.
- ⑤ 2선과 4선 악보에서는 음자리표를 볼 수 없다.

43. 위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44. <보기>는 ‘프랑코 기보법’을 활용하여 ㉠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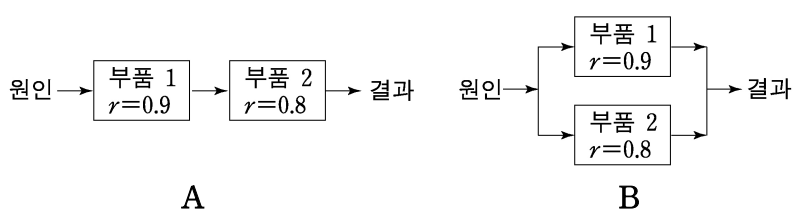
- ① 음높이보다는 음길이에 관한 표현이군.
- ② A 부분은 완전 분할된 리듬을 보여 주는군.
- ③ A와 B 부분에서 약기 3의 리듬이 가장 빠르겠군.
- ④ A는 ‘강-약’으로, B는 ‘강-약-약’으로 연주될 수 있겠군.
- ⑤ A의 룡가 1개는 B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 시간이 같겠군.

45.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개정(改定)하고 ② 판정(判定)하고
- ③ 인정(認定)하고 ④ 추정(推定)하고
- ⑤ 설정(設定)하고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 ($0.1 \times 0.2 =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중중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 n 중 k ’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 개의 부품 중에 k 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 점의 최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 점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text{그 부품의 신뢰도})$

46. ‘신뢰도 구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직렬 구조에서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②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 ③ $k=n$ 일 때, ‘ n 중 k ’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 ④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에서 더 많다.
- ⑤ 신뢰도 0.98은 100번 작동에 98번 꼴로 고장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7.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 0℃~40℃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8.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는?

- ①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②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작동을 멈춘 청소기에 새 퓨즈 1개를 교체해 넣으니 다시 작동하였다.

③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④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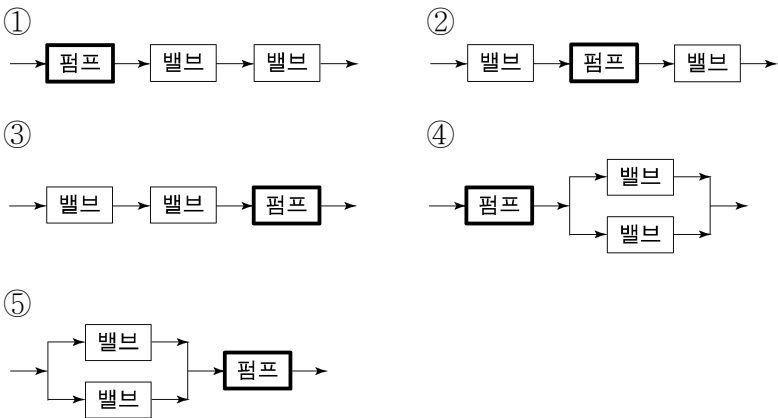
⑤ 이중 제동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제동 장치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4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보 기>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5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붙박 끼어들었다.

③ 민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